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1)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도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요한계시록 3:14~17)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라오디게아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파한 곳이며 사도 바울 역시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골 4:15~16). 라오디게아는 양모가 풍부한 곳으로 일찍부터 은행 제도가 생겨날 정도로 부요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족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실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나태했습니다.

1.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었고 불순종이 없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빌 2:6~8).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직 ‘예’와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이론 등 자기가 옳다 하는 모든 것을 무(無)로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주장을 내세우거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오직 ‘아멘’만 합니다. 예를 들어, 충성된 장수는 왕이 ‘가라’ 하면 명령 목숨이 위태로운 곳이라 해도 순종해 떠납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사 53:4~10, 61:1~3 ; 스 9:9)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며 충성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됐다는 사실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골 1:15~17). 원래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요한복음 1:1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지요. 요한복음 1:14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하나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시며 주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 주

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면서도 오직 아멘과 충성으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역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2. 네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신앙 안에서 찬 것과 더운 것, 미지근한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아예 구원과 상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해 참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므로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들어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구원과 멀어진 사람을 ‘차다’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더웁다’는 것은 성령받은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며 믿음이 자라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죄와 죄 흘리기까지 싸워 그것을 버림으로써 날마다 육은 죽고 영이 자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자신을 희생하지요. 또한 마가복음 12:30에 말씀한 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바로 ‘더웁다’고 표현하는 뜨거운 신앙입니다.

여기서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이란 믿음의 분량이 크고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라 해서 차가운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다 해서 뜨거운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믿음이 작고 진리를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을 좇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좇아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령을 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뜨거워지지 않고 신앙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성령과 교통이 없으므로 그 음성과 주관과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모습을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차가운 신앙이 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대학·가·안·청년·배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